

“남도 관광하고 공연보고”

전남도립악단 토요일공연 관람객 급증

전남도립악단의 토요일공연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특히 토요일공연이 여행사의 관광상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수도권 등 타 지역 관람객도 크게 증가했다.

21일 전남문화예술회장에 따르면 추운 날씨에도 지난 20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전남도립악단의 토요일공연에 남도여행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대성황을 이뤘다.

이날 공연장에는 하나투어 등 유명 여행사의 여행 상품을 통해 토요일공연을 찾는 수도권 지역 관람객 120여명을 비롯해 320여명의 관람객이 객석 대부분을 채우며 곡악단의 뛰어난 연기와 흥겨운 무대에 뜨겁게 호응했다.

보통 토요일공연 관람객 중 타 지역 관람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0%에 불과했지만 이날은 37%를 넘어섰으며 여행사를 통해 토요일공연을 찾는 관람객도 2배 이상 늘었다.

여행사의 남도여행 상품을 통해 토요일공연을 찾은 문영순(여·59·인천시)씨는 “경치만 봐도 여행과 다르게 공연을 봤던 것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며 “토요일마다 공연을 한다고 하니 다시 한번 가족들과 함께 오고 싶다”고 말했다.

김명원 전남문화예술회장 사무처장은 “순천만정원 박람회 등을 비롯해 4~5월에 축제와 잇따라 열리면서 전남도립악단의 토요일공연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토요일공연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전KPS 나주연수원 내년 1월 착공

市, 다도면 일대 부지 계약...2015년 가동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전 조속 추진해야”

나주호 일원에 들어설 한전KPS 나주연수원(복합연구소)의 부지확보가 마무리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나주시는 다도면 관촌리 일대 12만 4000㎡에 대한 매매계약이 완료돼 조만간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KPS 연수원은 교육연구소, 관리시설, 후생시설 등 모두 5개동에 전체 면적 2만1036㎡ 규모로 내년 1월 공사가 들어가 연말 준공할 예정이다.

나주연수원은 국가의 근간시설인 국내 발전시설 정비와 해외 진출 기술력 양성, 연구와 연구기능 등을 맡게 되며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연수원 건립으로 지역민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식

재료 공급으로 지역농가의 소득향상이 기대된다”며 “차질 없는 공사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인터넷진흥원)의 나주혁신도시 지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15개 이전 기관 가운데 14개 기관의 4월 현재 평균 건축 공정률이 30%에 이르고 있는데 인터넷진흥원만이 아직까지 부지매입은 커녕 지방이전 계획조차도 승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

정책기조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직무를 태만하는 것이다”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나주시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와 지역발전위원회에 인터넷진흥원의 지방이전 업무 추진 촉구를 건의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 인터넷진흥원의 상급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나 국토교통부, 지역발전위원회,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등과 긴밀히 대응해 나가면서 하루 빨리 지방이전 업무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전남 마을 도로 377곳 정비

道, 5년간 260억원 투입

전남도는 올해부터 5년간 260억원을 들여 주민과 농기계 등의 통행이 빈번한 마을 도로 377곳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대상은 지방도 가운데 20가구 이상이 사는 마을을 관통하는 구간이나 지방도와 접하고 있지만 도로 폭이 좁아 보행로가 없는 곳 등이다.

전남도는 이런 길을 2~3m 정도 넓혀 보행자나 농기계 등의 통행 공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교통안전공단 등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39.1%가 보행자로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노인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진보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도로부터 우선해서 보행로를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

팜파티로 역대 ‘부농의 꿈’

전남농기원, 농어업인 초청 워크숍 성료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민수)과 전남사이버농업인연구회(회장 강근수)는 지난 18일과 19일 장성군(취사읍)에서 황토테마랜드에서 전남지역 농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팜파티를 통한 마케팅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능력배양을 목적으로 유형별 팜파티 교육 및 우수사례, 시군별 팜파티에 대한 평가와 토론, SNS를 통한 사이버 마케팅과 고객관리 등이 논의됐다.

특히 ‘열광하는 팬을 만드는 팜파티 마케팅’을 주제로 강연을 한 김태현(주)인비트로플랜트 대표는 “스마트시대 마케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고객이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을 개발하는 것”이라며 “팜파티를 통해 농촌을 경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

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사이버농업인연구회 김한국(41·나주)씨는 “SNS나 팜파티 등 도시 소비자가 쉽고, 즐겁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판매경로를 개척해 역대부농의 꿈을 꼭 이루겠다”고 말했다.

팜파티(Farm Party)는 농산물과 농촌문화를 통해 도시 소비자와 교류함으로써 농장을 알리고 지속적인 농산물 구매로 이어지게 하는 새로운 농촌 관광모델이다.

전남농업기술원은 팜파티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팜파티 농가 및 전문가 육성, 브랜드 개발, 워크숍을 실시해 참여농가의 소득을 20% 이상 늘렸으며 올해도 4월부터 10월까지 20여 차례의 팜파티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백련사 다례제

‘백련사 다례제’가 지난 20일 강진 백련사(주지 여연)에서 열렸다. 다례제는 고려시대 불교개혁운동인 ‘백련결사운동’을 주도했던 8명 국사(國師)의 넋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열리고 있다. <강진군 제공>

전남 연안 30억원 들여 황금어장 조성

道, 치어 1700만마리 방류

전남도는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 30억원을 들여 관내 해수면과 내수면에 넙치, 감성돔, 전복 등 29개 품종 160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 고흥, 완도 등 동해 13개 연안 시군의 해수면에는 넙치, 전복, 돌돔, 감성돔, 해삼, 대하 등 18개 품종 1500만 마리의 종묘를 방류하고 내수면에는 붕어, 잉어, 은어, 뱀장어 등 11개 품종 150만 마리를 방류한다.

전남도는 지난 1988년부터 수산종묘 방류를 시작해 현재까지 135억원 을 들여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우량종묘 2억 9700만 마리를 방류해 어업인 소득

어종	금어기간	어종	금어기간
참조기	4월22일~8월10일	해삼	7월
대하	5월~6월	전복	9월~10월
꽃게	6월~9월	연어	10월~11월

어종	제한 크기	어종	제한 크기
감성돔	20cm 이하	뱀장어	15cm 이하
돌돔	24cm 이하	조피뿔박	23cm 이하
참돔	24cm 이하	꽃게	6.4cm 이하
넙치	21cm 이하	전복	각각 7cm 이하
잉어	30cm 이하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전남도가 그동안 방류한 종묘에 대해 2007년부터 해역별·어종별 방류 효과 조사를 한국수산자원관 리공단에 위탁 실시한 결과 넙치의 경우 생산량의 80%를 방류산이 차지했고 해삼은 방류 전보다 3.3배의 어

획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이를 토대로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우량 품종을 선정해 적정시기에 방류하는 등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

새로운 패러다임의 거침없는 뉴스쇼

관

박은주 조선일보 문화부장

최희준 TV조선 취재에디터

김미선 TV조선 정치부 기자

관

월~금 밤 9시 50분 방송

대한민국 어디서나 채널 19번

TV조선